

# 업

마 전 산업자원부에서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12대 무역 강국, 제4위의 외환보유국이며, 조선 1위·반도체 3위·디지털가전 4위·석유화학 5위·철강 5위·자동차 6위 등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주력산업을 다수 보유한 나라로서 그 위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산업국들이 그러했듯이 사회나 산업의 성장구조상 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를 모두 극복한 것은 아니며 세계경제의 구조적 한계 점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벤처기업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중국이 개방정책을 도입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인은 한국의 넛크래킹(Nut Cracking) 현상을 경고해 왔다. 중국에게 하드웨어(생산기지)를 잃고, 일본에게 소프트웨어

(R&D, 디자인, 인프라 등)를 지배당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실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현실점에서 과거의 우려는 다소 과장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품은 갈수록 첨단화, 소형화, 모듈화되고 있으며 개발 속도는 무척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화, 소프트화 및 스피드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는 작고 빠르고 영리한 벤처기업이라고 본다.

스마트, 소프트, 스피드의 사례는 경제활동 이외의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은 작고 빠른 전차와 기계화 부대에 속도라는 개념을 적용시킨 전격전을 통해 40여 일 만에 파리를 함락했다. 반면에 프랑스군

은 내부에 2인용 침대까지 갖춘 느리고 큰 탱크를 대포와 동일한 화력지원장비라는 개념으로 운용함으로써 제대로 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수송열차 위에서 소실되고 말았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빙하기가 오면서 거대한 몸집의 공룡, 매머드는 추위와 굶주림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례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작고 빠른 설치류 등의 포유류는 땅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개체수를 급격히 늘리며 성장해 나갔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물론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현상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구의 자연환경이 변화의 사이클을 겪어 왔듯, 경제에도 변화의 사이클이 계속 회전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시점이 또 한번 강조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만족도를 높여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통한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넛크래킹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R&D의 고숙화·첨단화를 실현하는 제조기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고부가의 부품·소재분야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시도하는 것이 '세계분업구조의 보완자 역할'과 '2015년 1인당 GDP 3만 5000달러'를 달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이라는 구조체의 활성화가 최선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O V E R   T H E   V E N T U R E

## 벤처와 넛크래킹

글 \_ 안건영 (경기벤처협회 회장)